

사회삼원론과 행복한 삶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강연

2025. 5. 17. 토.

슈타이너사상연구소 김훈태

우리는 아이들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길 바라는 것처럼, 학교를 졸업한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행복’이란 말이 막연하긴 한데요. 행복이란 뭘까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이런 상투적인 차원은 우리의 주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행복’이란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느끼는 충만한 감정입니다. 학교를 막 졸업하고 세상에 나온 아이들은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자기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실패하는 것은 아닌지, 감당 못할 상황이 다가오는 건 아닌지... 그러나 발도르프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 탐색을 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행복을 바라지만 불행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시대

오늘날 우리는 아이가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말을 하면서 가혹한 현실로 내모는 경우가 많습니다. 7세 고시에 대해 들어보셨지요. 참 끔찍한 일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놀아야 할 아이들이 초등 1학년부터 소위 ‘명문’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입시공부를 합니다. 영어를 저학년 때 끝내야 고학년 때는 수학을 집중해서 다룰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들볶는다고 합니다. 7세 고시를 잘 보려면 좋은 영어유치원에 다녀야 하니 4세 고시도 생겼습니다. 아이들도 힘들지만 그 부모들도 우울증이 올 정도로 힘겹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작년에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29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라고 하지요. 영유아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30조를 거뜰히 넘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 오히려 아이들을 망치는 일인데 왜 여전히 사교육의 광풍이 잠들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불안해서 그럴 것입니다. 하나나 둘, 귀하게 낳은 아이가 커서 비참하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또는 풍요롭게 살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남들보다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거나 최소한 남들만큼은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겠지요. AI와 로봇 기술이 지배할지도 모를 미래사회에서 안정된 경제생활을 지금부터 준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시장은 영리적으로 이용합니다. 쉽게 말해 사기치는 건데요, 사교육업체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지요. “이미 늦었습니다.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한참 뒤처졌다는 얘기죠.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 경쟁체제에 헐레벌떡 진입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다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이가 중심이 아니라 정신없이 돌아가는 체제논리가 중심이 됩니다. 다들 그러고 사니까 같이 미친 듯이 뛰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아이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면서요.

그렇게 경쟁해서 좋은 직업을 갖는다고 해서, 또는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선택해서 해나갈 때 비로소 삶이 의미 있지 않을까요? 어떤 직업이 되었든 좋은데, 아이의 적성이 그 직업에 맞을지 안 맞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그 고소득 직업 자체가 남아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AI와 로봇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지금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AI를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뭘 원하는지, 무엇이 궁금한지 명확해야겠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AI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 효율성과 탁월성에 대해 듣고 있긴 하지만 AI를 사용할수록 저 자신의 개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입니다. 아무려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은 어려서부터 AI를 잘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아이의 자아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예술적이고 인문학적인 교육입니다.

저는 발도르프 교육이야말로 AI시대에 꼭 맞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손과 발을 충분히 사용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교육은 요즘 시대에 정말로 귀한 교육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이들의 자아를 건강하게 성장시켜주는 살아 있는 교육입니다. 여전히 공교육 현장은 머리만을 쓰게 하는 주지주의 교육 중심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발도르프학교로 넘어온 케이스인데요. 제가 처음 발도르프 교육을 알게 된 20여 년 전에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이 발도르프 교육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 알게 되면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고, 아름다운 교육임을 깨닫게 되어 교육계 전체가 변화할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정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발도르프학교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을 닫는 발도르프 어린이집이 생겨났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개인의 불안은 잘못된 사회 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기보다 나빠졌다는 걸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던 8, 90년대만 해도 지금처럼 경쟁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든 입시교육이 중심이었지만 최소한 교실에서 친구들끼리 경쟁한다는 느낌은 거의 없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놈은 나중에 안 찾아온다, 공부 못하고 말썽부리던 녀석들이 그래도 의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많이 하셨지요. 아직은 공동체 문화가 남아 있던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20세기 말, IMF 체제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동체 문화라는 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각자도생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신자유주의자가 된 셈입니다.

모든 게 상품이 되었고, 시장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는 학교도 교육도 상품이고, 학생과 부모는 교육소비자, 교사는 교육서비스 노동자처럼 되었습니다. 누구나 자기 이익을 절대적으로 중요시 여기고, 아무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경쟁은 당연한 것이며, 무능한 사람은 도태되어야 합니다. 사회는 그저 개인들의 집합소이고, 능력이 뛰어나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무능한 사람은 대놓고 무시를 당합니다. 저는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토록 불안해진 것도 이렇게 잘못된 사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은 사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교육이란 무엇이고, 경제란 무엇인지, 행복하게 산다는 게 진정 무엇인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봐야 합니다. 당연히 교육은 아이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지금 아이가 행복하게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아이의 자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입니다. 경제는 약육강식의 전쟁이 아니지요.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자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가 곧 경제인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해주어서입니다. 이 옷을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커피도 먼 나라의 누군가가 커피나무를 재배하고 또 누군가가 커피콩을 옮겨오고 볶아서 내려준 것입니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지요. 많은 사람이 애써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다른 이들의 노동에 의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대사회가 되면서 사회는 복잡하게 분업화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분업화된 일을 우리가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는 이유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타인들을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상식적인 생각을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왜곡해 버립니다.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은 인간을 합리적이지만 매우 이기적인 존재로 상정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자유주의는 마치 사회를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며 사는 존재지요. 따라서 경제 영역은 박애의 정신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박애 또는 형제애, 우애, 사랑이 경제적 가치인 것입니다. 나는 타인들의 노동에 의해 살 수 있고, 내가 노동하는 것은 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이런 실상에 대해 왜곡된 사고를 갖게 합니다.

올바르게 사고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발도르프 교육을 선택할 거라는 믿음을 여전히 저는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가 겪었던 지난 몇 년간의 지독한 퇴행은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 다시 말해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고방식에 그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란행위로 탄핵된 대통령을 누가 뽑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뽑았습니다. 직접 뽑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막지 못한 책임이 큼니다.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도 우리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마음 한켠에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나도 기득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100여 년 전, 처음으로 발도르프학교가 세워질 때 슈타이너는 사회삼원론 운동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1914년부터 18년까지 이어졌던 끔찍한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슈타이너는 이러한 전쟁의 원인이 사람들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획일화된 국가권력, 즉 중앙집권화된 권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낸시 프레이저의 <낡은 것은 가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은>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에서 ‘진보적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진보적 신자유주의, 특이한 이름이지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프레이저는 사회적 불의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된 분배의 문제, 그리고 소수자나 약자의 정체성과 관련된 인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입장을 보면 유색인종이나 성소수자, 여성에 대해 인정하

고 존중하는 정책은 제법 과감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보적이지요. 그런데 분배 문제에서는 세련된, 또는 교묘한 신자유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명해진 성소수자나 부유한 흑인, 기득권에 편입된 여성 등이 민주당 내에서 높은 자리를 갖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중산층이나 하층민은 심각한 경제 불평등 때문에 불만이 매우 큼니다. 분배의 문제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극우 포퓰리즘을 내세웠지요. 백인 중산층, 서민들의 분노를 약자에 대한 혐오로 전환해서 유색인종과 이주민을 혐오하도록 선동하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지자들에게 다시 위대한 아메리카를 만들자고 거짓 약속을 했습니다.

곧 대선이 있어서 정치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이 선거로 인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늘 시대정신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대의 흐름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진보적 신자유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IMF 체제는 김영삼 대통령이 불러들였지만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물론 이명박 같은 사람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보수 정권, 정확히는 극우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우리의 삶이 그들의 장밋빛 약속과 달리 매우 처참하게 추락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진지하게 분배의 문제를 의제로 내세워야 합니다. 기득권이 모든 걸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세계관, 우리에게 너무나 깊이 들어온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을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보수 정당이 중심을 잡고 제대로 된 진보 정당이 약진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극우 정당은 완전히 퇴출되어야 하겠고요.

사회삼원론적 사고방식

루돌프 슈타이너 역시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천박한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사회삼원론 운동의 일환으로 그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협의를 하면서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기업운영은 노동자를 착취하고 과잉생산을 일으킬 우려가 항시 존재합니다. 슈타이너의 노사협업체 운동은 독일에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고, 에밀 몰트라는 사업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바로 첫 번째 발도르프학교를 열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한 발도르프-아스토리아 담배회사의 사장입니다. 처음에 그는 슈타이너를 초대해 노동자들에게 강연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대부분 여성, 다시 말해 어머니들이었습니다. 많은 남성이 전쟁터로 끌려가 죽거나 장애인이 되었으니 어머니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강연을 들으며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더 큰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1919년 가을 슈투트가르트에 첫 번째 학교가 생겼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운동의 근간에 사회삼원론의 정신이 있습니다. 사회삼원론은 우리의 기존 관념을 근본부터 흔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이를 이 학교에 보낼 때 학비를 냅니다. 왜 학비를 내지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 다니니 그 댓가로 낸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은 발도르프학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반학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우리 엄마 아빠가 내는 세금으로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교육 상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으니 서비스를 똑바로 하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교육은 경

제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사고팔 수 없습니다. 교사들이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돈 많이 벌어서 부자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학비를 내는 것은 사실 이 발도르프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후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은 나 혼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벌었을 때 우리는 이 돈을 어디에 쓰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일에 집중적으로 써야 합니다.

우리 삶의 행복은 대부분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활동을 할 때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우정을 나눌 때,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때, 예술활동을 즐길 때, 그리고 공부할 때도 참 행복합니다. 학교는 바로 그 정신-문화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자유의 정신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유롭게 교육 활동이 벌어지려면 경제 영역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은 사실 무상으로 보내는 게 맞습니다. 돈이 없다고 학교를 못 보낸다거나 돈이 많은 사람은 아주 비싼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것은 부조리한 일이지요. 돈이 많으면 학교에 후원을 많이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면 적게 후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학교가 잘 운영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경제 영역에서 들어오는 아낌없는 후원이라는 것입니다. 학교 운영에서 부모들만의 후원이 아니라 기업체나 독지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학교의 생존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는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 돈이 정말로 의미 있는 일에 쓰일 수 있다면요.

슈타이너의 경제학에 따르면 돈, 즉 자본은 우리 모두의 공공재입니다. 경제라는 것은 반드시 둘 이상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서 혼자 고기 잡고 농사지어서 사는 것을 경제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외부 세상에서 노동을 하고 무언가를 생산합니다. 목재나 철광석 같은 것을 원자재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용해 만든 의자나 자동차는 자본재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상품이 되고 시장에서 팔려나가 자본이 됩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상품이 생산되고 운반되며 소비됩니다. 이 결과 생겨나는 자본은 마치 식물의 꽃과 같습니다. 더 정확히는 꽃에서 나오는 꿀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러한 자본은 태양이라는 정신-문화 영역을 향합니다. 따라서 사적 이윤 추구를 위해 경제 활동을 한다거나 자본이 축적되어 기득권 계급을 위해 쓰이는 것은 사회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자본은 정신-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살찌우는 데 쓰여야 합니다. 정신-문화 영역에서 나오는 창조적 힘은 경제 생활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앞서서 정치 이야기도 했지만, 정치는 경제 생활과 문화 생활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 법률, 국가 영역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약속들과 관련이 깊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그러니 평등의 정신이 핵심을 이룹니다. 부자가 됐든, 고위공직자가 됐든 정치적으로 평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최근에 사법부가 내란과 대선에 개입을 해서 큰 문제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일부 판사나 검사 같은 법조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특수계급화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서 법은 특권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법이 강제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저는 신자유주의와 사법화, 두 가지를 들고 싶은데요.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전부 다 사법기관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경향, 즉 사법화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사안도 모두

사법부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흐름이 커지다보니 검사나 판사들의 권력이 너무 막강해졌고, 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계급화하면서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병원이나 학교 같은 일상 생활 영역까지 사법화가 이뤄지면서 작은 갈등도 대화로 풀지 못하고 고소, 고발하는 일이 낫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져야 하고 법조인들도 권력을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공동체 관계를 새롭게 복원해야 합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87년체제를 넘어서야 할 때에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87년체제는 민주화 운동의 커다란 성취이기도 하지만 한계이기도 합니다. 87년체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한계,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 그리고 분단체제입니다. 이번 내란도 북한과의 갈등을 이용하려고 했지요. 아직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외환 유치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났을 수도 있다고 하지요. 당장 통일은 못하더라도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이끌어내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여전히 종북, 빨갱이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다음으로 경제 문제인데요.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넘어서는 일에서 저는 사회삼원론이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양극단을 넘어서는 일에 사회삼원론적 경제논리가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슈타이너 경제학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기업을 운영하되 그 결실이 사적 소유가 아닌 사회 전체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생산성이 좋은 기업의 운영자와 노동자들은 어느 정도의 혜택이 주어져야 하고요. 노사간 협의는 필수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 현재에도 기업의 이사회에 노동자측이 50%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나 지역화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슈타이너의 경제학과도 상당히 밀접한 주제라 저는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서 더 많은 민주주의,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등은 이 학교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발도르프학교 중에는 시에서 땅을 100년 정도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현실 정치와 긍정적인 협력관계를 마련하는 것도 무시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 안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발도르프학교의 민주주의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제가 얼마 전 슈타이너의 <일반인간학> 10강을 강의하면서 감동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한 인간이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경외감을 갖지 못한다면 말, 즉 언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왜 저에게 감동적이었냐면, 저는 갈등조정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도 한데 관계 회복을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에 대해 연

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슈타이너는 그 대화, 즉 말은 우리가 정신성을 놓칠 때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학교 안에는 정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로 민주적이고 건강하다면 갈등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교육적 자산이지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신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 사람의 본질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놀라워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게 발도르프 교육의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외감 또는 우주적 감정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여기에서 끝내고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

Q)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가치 공유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

A)

학생-교사 관계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대화가 필요하다”는 슈타이너의 문장이 와 닿았다.

정신적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정신적으로 상대방에게 경외감을 갖지 않는 것과 같다.

정신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지 돌아보고, 서로의 마음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당사자 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3자가 각자의 마음을 들어주고, 이후 함께 만나 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시도해보라. 쉽지 않은 과정이며, 훈련이 필요하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느낄 때 개인은 “참담함”을 느끼고, “삶의 의미”까지 회의를 가질 수 있다.

교실 안의 갈등을 교사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며, 또래상담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부모간에도 이런 과정 자체를 공부하고 훈련하는 소모임을 갖는 것도 추천한다.

고립되고, 관계에서 소외된 개인의 사고는 매우 위태로워질 수 있다.

끊임없이 상대의 의견을 통해 조정되고, 균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대화하도록 노력하라. 공동체 뿐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일이다.

Q)

발도르프학교는, 교육 자체의 정신적인 부분과 재정이라는 현실적인 부분이 모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학교에서 재정과 관련된 논의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

A)

재정 관련한 논의가 어려운 것은 한국 사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학교 재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공유해야 하고, 자본의 필요성 등 자본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교육과 관련한 정신 영역을 지탱하기 위해 재정은 두발을 땅에 단단히 디디는 것과 같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접근하는게 필요함을 구성원이 공감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자체의 장기적인 지원(예: 토지 100년 대여 등)을 추진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도 필요하다.

Q)

정신문화영역에서 구성원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면서 가치를 공유할 방안은 무엇인가?

A)

스웨덴의 경우 “스터디 서클”의 운영이 활발하다.
삶의 문제에 대해 서로 묻고, 생각하고, 답하는 문화가 도움이 될 것이다.
책 ‘서클의 힘’을 추천한다.
서울자유발도르프의 규모도 이미 전체가 다 모여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학년별 무작위 차출 등의 방법으로 공동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방법은 어떠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이야기는 비밀로 해야 한다.
관계 형성은, 나의 선호, 희망, 취미, 고민 등등을 나누면서 상호 존엄성을 깨닫는 과정이다.

Q)

8학년 아들의 학부모인데, 자유프로젝트 2주전임에도 준비에 소홀하다. 상급과정 진학조차 고민이다.

A)

잘 하려는 아이, 내일이 아닌 것처럼 하는 아이 등 다양하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는 아이와 분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발표를 망쳤을 때 망신 당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실패의 경험을 부모가 먼저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이도 자아가 있고, 스스로도 평가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Q)

발도르프학교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A)

저출산 문제는 현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따라 적기에 교육하는게 발도르프교육이므로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교육 형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사회는 확실한 것에 집중하는 분위기이다. (많은 부모가 의대를 보내려고 하는 것처럼)
사회적인 성숙도가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다.
발도르프 학교의 공통 문제는 재정과 갈등이라고 본다.

1) 재정

: 기업, 지자체, 정치인 등 지원 요청이 필요하다. 학교 자체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2) 갈등

: 구성원 개개인이 자기 교육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 교사-부모-학생 간 서로 연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획이 필요하다.

: 갈등에 따른 절차를 마련하고 공유해야 한다. 프로세스가 있어야 구성원이 불안하지 않다.

수업의 질적인 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유지하고는 있으나, 홍보가 잘 안되고 있다.

나는 발도르프교육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의지가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자.